

## 10장 : 작품을 통한 시기별 예술 비교

### ◆1교시 : 작품을 통한 시기별 예술 비교 ①

#### ▲그리스 고전기 예술의 예

수학적 원리에 기초한 규범에 맞게 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 고전기의 전형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회화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죠. 주로 도자기에서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후대에는 주로 회화에 있어서도 그리스의 고전기 조각을 모범으로 삼고 있죠.

지금부터 눈 여겨 보세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이나 바로크 조각, 로코코까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잘 보세요.

이것도 아폴로상이죠. 그리스 고전기. 더 세부적으로는 후기 고전기인데요. 이 아폴로상을 보면 그들의 이상인 비례, 조화, 그들이 설정한 규범에 맞게 만든 작품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정신적, 한마디로 내용적이건 테크닉이건 절제돼 있고, 고요하고 단순미가 느껴져요. 나중에 복잡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표정도 보세요. 무표정함. 조각 같은 얼굴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무표정함을 떠올리죠. 그게 그리스 고전기 조각에서 연유된 거예요.

이건 헤르메스상인데요, 무표정하고 절제된 감정. 절제된 동세. 정적인 동세죠? 단순한 표현들. 조화미, 비례미는 물론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것도 같은 시기의 비너스상. 이것이 바로 후대 예술의 전형이 되는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들이에요.

이건 바로 뒤에 오는 헬레니즘기의 라오콘상이죠. 비교를 해보세요. 헬레니즘기로 오면, 굉장히 격렬해지고 다이내믹해지고 드라마틱해져요. 신화의 내용이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바다뱀들이 라오콘과 아들을 죽이는 거죠. 독사를 보내고. 여기에는 어떤 드라마가 있고 동세는 다이내믹해지고 얼굴표정은 풍부해지고. 바로크로 가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같은 그리스지만 후기죠. 헬레니즘 조각과 앞서 보았던 고전기가 전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각인시켜 놓으시고.

아폴로 조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16세기 전반이죠. 르네상스 대가들의 시대. 전반기 르네상스. 이 시기 대가들의 한 명인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인데. 그리스 고전기의 규범을 가장 잘 작품 속에 실현하는 화가가 바로 라파엘로예요. 여기에는 그리스 고전기의 단순미, 절제미, 조화미, 정적인 고요한 이미지를 다 담고 있죠. 성모 마리아의 절제된 얼굴 표정, 표현 그리고 절제된 빛의 사용.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크기로 가면 회화에서는 강한 빛의 콘트라스트(contrast)로 역동미를 나타내요. 조각에서는 직접 그런 동세가 3차원으로 나오지만, 회화에서는 빛과 색채를 강렬하게 대비시키는 법을 이용해서 그리스 고전기의 전형을 깨죠. 이건 가장 전형적인 규범을 따르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라파엘로의 그림. 한 군데도 기울어짐이 없는 조화미, 균형, 대칭성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감상을 해보시고.

#### ▲고전기 예술과 매너리즘 예술의 비교

이제,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기에 오면, 그런 규범이 많이 깨지죠. 일부러 일그러뜨리죠. 그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인체비율을 깨뜨리죠. 이 그림의 제목이 <긴 목의 성모>예요. 목이 긴 성모라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인체를 일부러 늘어뜨려서 비율을 깨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구도도 굉장히 불안하게 했죠. 고전 예술에 있어서의 안정감, 균형미를 다 깨는 거죠. 한 쪽으로 다 쏠려 있죠. 사람들을 한 쪽에 다 쏠려놓고, 한 쪽은 텅 비어놓고. 불안해 보이는 알 수 없는 기둥, 작은 인물이 표현돼 있죠.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조화스러운 느낌.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전체적인 조화, 균형, 대칭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일부러 왜곡시키는 거죠. 일그러뜨려서. 틴토레토의 작품, 이것도 매너리즘 시대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강렬한 역광처리를 하고, 음산한 분위기에 맞게 한 쪽은 텅 비어 있죠.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비운다는 것은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로테스크함, 기괴함, 불안해 보이는 역광처리, 음산한 분위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르네상스 전성기의 똑같은 <최후의 만찬> 다빈치꺼죠. 전체적인 조화, 안정, 빛에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제돼있죠. 똑같은 제목의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어떻게 다른가? 이들이 왜 욕을 먹었는가?

같은 시기 매너리즘의 조르조네의 작품인데, 전형적인 구도가 여기서도 깨졌죠. 가운데를 비우고. <용과 싸우는 성 게오르그>라는 작품인데, 주인공이 마치 엑스트라처럼 뒤로 빠지고, 도망가는 공주가 앞에 있고, 죽은 사람이 가운데에 있고.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갈랐어요. 이런 구도는 가운데가 중심이 돼서 균형과 조화, 대칭을 이루는 라파엘로의 고전기 그림이 회화에서 파격적으로 깨지는 거죠.

이 라파엘로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중앙에는 중심인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성모자, 양쪽으로 제자나 신도들. 아래에 천사. 이런 전형과 규범이 무자비하게 깨지는 거죠.

이건 매너리즘의 화가인 엘 그레코. 이걸 보면, 현대의 초현실주의 작품과 비슷하죠. 16세기 후반에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을 했나 싶어 놀랍기도 한데, 여기서 파격적인 규범으로부터의 탈피. 놀라울 정도예요. 비현실적인 색채 표현. 한번 엘 그레코의 작품과 천지장

조조, 시스틴 작품의 벽화인 미켈란젤로 작품과 비교해 보세요. 아까 그림은 요한 계시록의 한 장면인데, 같은 성서를 다루지만 전성기 르네상스와 바로 뒤이은 매너리즘과 어떻게 다른지. 조화, 균형, 안정감이 의도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 ▲고전기 예술과 바로크 예술의 비교

그리고 바로크시기에 들어서면, 이게 카라치의 작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슬쩍 드리고 지나갔는데, 매너리즘기와는 다른 파괴미죠. 억지로 뒤통다든가 일부러 균형을 깬다든가 일부러 원근법을 파괴시킨다든가 비사실적인, 비현실적인 색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작위성이나 의도성은 많이 잦아들면서, 여기에서 강렬한 빛의 콘트라스트를 볼 때, ‘아 이게 바로크 예술이구나. 왜 전통 예술, 고전 예술과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보세요. 이건 고전기의 다빈치 그림이에요. 보시면 강렬한 빛의 사용을 절제했죠. 그 절제미는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나 테크닉 면에서나 구도면도 다 드러나죠. 전체적으로 감정 표현도 온화하고.

반대로 이 그림은 감정표현이 풍부하게 표현되죠. 애통해하는 얼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감정에 대한 표현, 그리고 강력한 빛과 어둠의 대비에서 바로크의 특징을 다른 매너리즘과는 또 다른 전통에서 벗어나는 비전통 예술의 일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전기 예술품과 비교해보시고.

이건 카라치와 같은 바로크 시기의 카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이 제목도 성서 내용이죠. 이게 예수그리스도고, 이게 도마(십이 사도의 한 사람. 처음에는 모든 일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의 부활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예요. 도마가 예수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의심하니까 예수그리스도가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난 진짜 예수다. 라는 성서 내용을 담은 그림인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그래서 비판을 받죠. 그런데 이런 꾸밈없는 사실적인 표현이 후에 19세기 사실주의의 쿠르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여기에서도 바로크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어요. 강력한 빛의 대비. 표현에 있어서도 감정 표현이 절제돼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다빈치나 라파엘로였으면 이렇게 적나라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제했겠죠.

이것도 카라바조의 작품. 아까 작품은 <의심하는 도마>였고, 이건 <사도바울의 회심>이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병사였는데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강력한 빛의 콘트라스트. 아까 다빈치의 성모자상과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으며 감정표현은 얼마나 열렬한가. 드라마틱한가. 다이내믹함. 이것을 바로크 회화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만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인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다르죠. 굉장히

사실적이고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듯한. 카라바조 작품의 큰 특징이죠. 강렬한 빛의 대비, 풍부한 내용성, 감정표현을 담고 있는 바로크 작품 회화의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려보세요. 거기에서의 느낌과 얼마나 다른가.

이것도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빛과 어둠의 대비를 얼마나 강렬하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 ◆2교시 : 작품을 통한 시기별 예술 비교 ②

### ▲로코코 예술의 예

이제 바로크 다음에 오는 로코코 예술로 넘어가면. 로코코 예술은 프랑스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귀족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딱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귀족들의 생활인 한가하고 아기자기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아주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건 대표적인 로코코의 화가인 와토의 작품인데. 소풍가서 귀족들이 쌍쌍이 노는 그림이에요.

이 시대에 굶주린 민중들이 곡괭이니 삽을 들고 뛰어나올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한가하게 유유자적 빵 없으면 고기를 없지 같은 말을 하면서 한가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요. 이건 귀족 소녀가 춤을 추는 모습. 다 노는 것. 기법을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지.

이 사람도 와토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로코코 화가죠.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게 그리스 신화를 담은 그림이에요. 귀족들의 달콤하고 로맨틱하고 풍족하면서도 유희적인 느낌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현란한 색의 사용, 아기자기한 표현.

이것도 프라고나르의 그림인데, 나뭇잎 하나하나를 일일이 그렸어요. 그네 타는 귀족 여자와 놈팡이가 짝이죠. 둘이 희롱하고 노는 장면이에요. 귀족 남녀 한 쌍이. 뒤에는 하녀가 그 넷줄을 잡고 밀어주는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귀족들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바로 직전이죠. 귀족들의 밝은 생활과 일반 민중의 어두운 생활을 대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산한 배경은 곧 다가올 프랑스 혁명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시대상 귀족들의 세계를 이렇게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 ▲각 시대 조각의 예

조각으로 넘어갈게요. 그리스 고전기 조각을 다시 보세요. 균형, 비례, 절제, 조화, 단순미를 담고 있는 고전기 조각에서 시작해서, 매너리즘기로 가면, 이건 첼리니라는 조각가의 작품인데, 이건 소품이에요. 큰 게 아니라. 엄청 요란한데 조금 후추통이에요. 공예품인 거죠. 거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배치해서 손잡이가 되는 거겠죠. 이게 보여주는 건,

기발함 독특함. 아까 말했던 매너리즘 예술의 특징인 반짝반짝한 착상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이건 볼로냐라는 매너리즘 시기의 조각가인데, 머큐리라고 날개를 달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에 해당하죠. 아까 헤르메스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폴로 보여드리면서. 고전기의 헤르메스상과 비교해 보세요.

이 헤르메스, 즉 머큐리는 북풍 위에 한 발로 서 있는 그림인데 감히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한발로 서 있는 작품은 고전기에 만들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역동적이고. 이런 아이디어 재기 발랄함이 돋보이는 매너리즘 작품이죠.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면서,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탈피하죠. 이게 아폴로와 다프네라고 해서, 신화의 한 장면인데 아폴로가 큐피드의 화살을 맞고 다프네는 납 화살을 맞고. 아폴로가 좋아서 따라가는데 다프네는 죽어라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신들이 불쌍히 여겨서 월계나무로 만들어버리죠. 그때부터 아폴로 머리가 월계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프네를 못 잊어서.

이 다이내믹함과 드라마틱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처음에 보여드린 아폴로 상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게 바로 바로크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대표적인 바로크 조각가죠.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면, <성 테레사의 범열>이라고 해서 테레사 수녀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느낀 황홀경을 나타낸 건데. 전체적으로 격렬한 옷 주름, 옷 날림.

바로크 조각에서 이런 걸 보고 들뢰즈가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주름들의 펼쳐짐으로 형상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러니까 질료적 차원으로 형상에 접근하는 거죠. 그만큼 알맹이,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통일된 형식, 형태감보다는 질료들의 표현. 여기서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것 자체가 주가 되는 거예요. 텍스처어, 재료 한 마디로 질료들의 접힘과 펼쳐짐, 접속과 배치, 천의 고원 식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을 들뢰즈가 논하고 있죠.

보시면 그만큼 얼굴 표현을 보세요. 황홀경에 빠진 얼굴인데, 감정 표현의 풍부함. 전혀 절제되지 않고, 너무 과장돼 있다는 폼하도 받는 거죠.

#### ▲예를 통한 고전기와 바로크 조각 비교

비교해 보시라고, 이건 그리스 고전기 헤르메스 상의 얼굴 부분이에요. 얼마나 무표정하게 감정이 절제돼 있는가. 그걸 이어받는 르네상스 조각을 보면, 도나텔로의 성 게오르그 상이죠. 담담하고 무표정한 얼굴. 이게 바로 그들의 전형이고 규범이죠. 이렇게 절제된 표현.

그리고 조각에 있어서도, 이게 16세기 전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죠. 골리앗과 싸우는 다비드.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줄로 돌을 감아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돌을 던지는 폼이 아니에요. 사진 찍으려고 폼을 잡은 것 같은 절제된 동세, 감정, 표현들. 이게 바로 그들의 전형이고 규범이라면, 바로크 조각에서는 정반대죠. 풍부한 감정 표현과 풍부한 동세, 다이내믹함과 드라마틱함.

다프네의 얼굴을 보세요. 긴박함, 처절함, 단말마의 느낌이 얼굴에 잘 살려내고 있죠. 아까 헤르메스 상이나 도나텔로의 상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베르니니를 흑백으로 찍으니까 조각에 있어서는 콘트라스트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흑백사진을 한번 넣어 봤어요. 이 격렬함, 얼마나 엑스터시가 격렬한지 옷 주름에서 그게 확 표현되는 거죠. 거의 히스테릭하다고 할까요. 아주 날카로울 정도로, 마치 고기가 비늘을 세우듯이 감각의 비늘이 하나하나 다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질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격렬함

이것도 같은 바로크 시기의 조각. 바로크 조각을 몇 개 더 감상해 보세요. 휘날리는 옷자락까지 어떻게 저렇게 역동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지. 극적이고.

이건 그리스 고전기 조각상이에요. 고전기의 규범인 정적이고 절제돼 있고, 고요한 규범들에서 바로크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아까 도나텔로의 얼굴 봤죠? 이건 전신상이에요. 르네상스 시기의 도나텔로라는 조각가의 조각품인데요. 그리스 고전기 조각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거죠. 정적이고 절제돼 있고 단순한 규범에 잘 따르고 있는 르네상스의 조각.

다시 바로크로 갑니다. 허리가 꺾어질 듯이 뒤로 젖힌 동세. 아까 도나텔로의 성 게오르그 상과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더 올라가면 그리스 고전기고,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아까 매너리즘 조각과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어떤 식으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 바로크 조각의 격렬함의 극치를 이루는. 납치되는 여자의 눈물까지 표현된 얼굴.

이것도 <성 테레사의 범열>과 같은 계열의 작품인데, 이것도 바로크 조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비통해하는 모습들.

### ◆3교시 : 작품을 통한 시기별 예술 비교 ③

#### ▲로코코 조각의 예

자 이제 로코코로 넘어가면요, 건축에도 해당하지만 조각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장식적이고. 이따 건축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로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규모가 훨씬 작고, 거기에 더 많은 걸 표현해요. 그래서 더 아기자기하고 복잡함을 넘어서서 너무 조잡할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장식에 치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뜬 경박함이 느껴진다는 평을 얻기도 하죠. 전통규범에 충실한 쪽에서 볼 때, 특징이, 색에서도 드러나요. 하얀 회벽에 금박 장식을 하고 장미꽃도 있고, 가구에서도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로코코풍이에요. 바로크풍이라고 하면 복잡하죠. 로코코 가구는 복잡한 것에 더해서 더 장식적이고 아기자기해요. 이런 조각들 보세요. 장식성.

이게 로코코 조각이에요. 더 아기자기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인형 같은, 그 시대의 귀족.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로코코풍이에요. 아기자기하게 표현되면서 예쁘게 채색된. 한 마디로 인형 같은 조각.

여러분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도자기로 만든 거 있죠? 그런 게 로코코풍이죠. 이게 성당의 조각된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에요. 딱 보면, 그 시대 귀족의 표상이에요. 인형 같죠. 포즈도 공주처럼 예쁘게 취하고 있고, 아주 장식적이면서. 성모 마리아만 해도 미술사 책을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중세의 성모는 어떻고 근엄하고 그 시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런가 하면, 고딕시대는 서민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민족 종교로 기독교가 거듭나고 그래서 서민들의 표상이 됐죠. 감정표현이 포장되지 않은 적나라하게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봤을 거예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을 생각해 보세요. 로코코 시대의 성모 마리아는 딱 공주, 인형 같아요. 그 시대의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스타일.

#### ▲예를 통한 고전기와 그 전통에서 벗어난 건축 비교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전이죠. 아테나 여신이죠. 이 신전이 전형이 되는 모티브를 형성하죠. 삼각형이고 박공에다 열주식 기둥들. 이게 전형이 돼서 르네상스에 그대로 부활되죠. 대칭, 균형, 단순미, 절제미가 건축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로마시대의 판테온이죠. 내부가 남아 있는 건 없고, 르네상스의 그림으로만 남아 있죠. 로마 시대에 형성된 게 바로 아치공법이고, 볼트식 천정과, 이게 위로 올라가면 돔이 되죠. 이걸 살린 게, 르네상스 건축이죠. 이게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전과 박공과 열주. 그리고 궁류형 천정, 아치형 문들이 바로 모티브가 돼서 르네상스에 다 재현되는 거예요. 돔형 지붕, 박공에다 열주식 기둥, 그리스 신전 같은. 그래서 로마 시대의 아치형이 다 실현되죠.

이 대칭, 비례, 균형, 조화. 알베르티가 주장했던 수학적 원리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인 안정감 있는 형태들이 다 실현되죠. 내부도 단순하고 안정감 있게 돼 있어요.

매너리즘기로 오면, 회화에 조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죠. 독특한 개성을 추구했잖아요. 매너리즘이 기존의 것을 모방한다는 의미는, 그리스식 신전을 본뜬 형태와 돔을 본뜬 로마식 형태를 모방하면서도 굉장한 아이디어를 쓰죠.

이게 왜 기발하냐면, 정면이 없고 사방이 다 똑같아요. 이게 한 면인데, 사방으로 다 똑같아요. 사방으로 정문을 낸 거예요. 이런 건 고전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주택이라는 게 더 기발한 거죠.

주로 아치형 창문을 쓰는 게 전통이죠. 그걸 벗어나서 악마의 입 모양으로 창문을 낸다든가 해서 기발하고 툭툭 튀는 발상이 돋보이는 게 바로 매너리즘 건축의 특징이고요.

바로크는 일단 균형, 비례, 대칭이 깨진다는 거예요. 불균형하고 전혀 대칭적이지 않죠. 보는 쪽마다 달라져요. 대칭적 건물은 사방에서 보는 모습이 다 같죠. 그리스 신전이나 르네상스식 건축을 보면. 한쪽 형태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지고.

이걸 보세요. 양쪽 대칭, 조화, 균형, 이게 바로 르네상스 전성기 건축이거든요. 그에 비해 바로크 건축은 균형과 대칭이 깨졌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화려해졌죠. 전통 건축의 규범, 건축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규범이 단순미, 절제된 표현, 그게 조각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다 실현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기둥을 쌍으로 세워서 과장했죠. 쌍 탑을 세웠다는 건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죠. 굉장히 과장되고, 과장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니까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바이올린 같은 곡선은 듣도 보도 못한 장식이죠.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든가 여기서도 기둥을 이중으로 세웠죠. 전통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쌍 탑은 주로 고딕시대. 종탑이 쌍 탑으로 세워진 게 많았죠. 기둥도 쌍 기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규범이 해체되면서, 내부는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죠. 이따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 내부를 다시 보여 드릴 텐데, 아까 보여드린 걸 떠올려보세요. 단순하게 절제된 내부 표현과 얼마나 다른가.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해져요.

반종교 개혁을 이룬 구교 쪽인 가톨릭의 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르네상스의 내부예요. 바로크 내부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단순한 거죠. 그리고 안정감 있고, 균형, 절제.

이것도 바로크 건축의 내부, 천장 표현의 복잡함. 복잡, 화려가 큰 특징이죠. 비대칭, 불균형. 그리고 조각이나 공예, 장식적인 요소를 온통 동원해서 내부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건축물을 보면 어때요? 단순하죠. 그런 절제미와 단순미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의 천정을 보면, 복잡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죠. 모든 장르가 다 동원돼요. 천정에는 조각도 있고, 색채도 있고 장식, 공예, 디자인 등 모든 요소가 다 동원돼서, 이게 다 조각품이에요. 이건 또 벽화예요. 천국을 나타내는 듯한 빛. 모든 조형 예술의 장르가 총 동원돼서 교회의 성스러움을 찬양하는 거죠. 극적인 요소들이 바로 바로크 예술의 특징이면서 곧 다가올 계몽주의 시대를 한편으론 내다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촛불이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타오르듯이 가톨릭 종교 예술의 클라이맥스예요, 바로크가.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8세기에는 더 이상 미술사에 있어 종교예술은 큰 획을 긋지 못하고 거론이 안 돼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 이전의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 같은 느낌을 담는 게 바로크예요. 종교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종교가 내보이는 천국의 이미지라고 할까. 성스러움의 이미지를 다 담고 있죠.

그리고 이건 로코코, 바로크의 연장이면서 훨씬 장식적이면서 기교적이고 아기자기하죠. 규모는 또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적이라는 표현을 받죠. 색깔로 굉장히 상큼하죠. 바로크 건물은 뭔가 웅장한 반면에 로코코 건물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교회예요, 성당인데, 장식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로코코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문짝이나 그 위에 장식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어요. 창을 중심으로 한 아기자기한 조각들. 문을 둘러싼 장식들.

이건 성당 내부의 성모 마리아 상과 기둥. 흰색과 금박이 로코코의 상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성당 내부인데,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있죠. 기둥장식과 건물 내부의 장식. 이렇게 해서 로코코까지 해서 전형적이고 규범적인 예술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예술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조각, 건축, 회화로 나누어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매너리즘, 바로크 바로크의 연장인 로코코까지 살펴봤는데, 가장 큰 의미는 ‘홈 패인 예술과 매끈한 예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예술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로크적인 특징, 매너리즘의 특징이 전통 규범과 어떻게 다른 미학적 특징을 갖는지 살펴봤죠. 이 강의 역사적인 부분, 미학적인 부분을 함께 가는데 오늘은 바로크와 매너리즘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역사적인 부분과 미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특징 지워지고,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비교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19세기와 19세기에서 주로 인상주의 쪽과 그에 이어지는 후기 인상주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로코코에서 이어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신고전주의를 봐야겠죠. 신고전주의가 그리스 고전기와 르네상스 고전기의 재현이에요. 그렇게 반복이 돼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닮았어요. 19세기까지는 주류가 되죠. 벗어나면 폄하되고 경멸되고 조롱받는 시대였다가 20세기, 모든 게 반전하죠. 모더니즘 예술이 등장하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신고전주의와 함께 다루면서, 물론 낭만주의도 조금 다뤄지겠죠, 마지막으로 가면 모더니즘과 추상에 대해 다시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기하학적 추상과 표현적 추상이 거기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다시 다뤄지게 되죠. 그러면

서 큰 두 줄기의 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반을 넘어 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